



뮤지컬 '보물섬' 타고 환상의 세계로

5~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이 가족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5일부터 8일(5일 오전 11시·오후 2·4시, 평일 오후 6시 30분)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보물섬'은 소년 짐 호킨스가 해적으로부터 보물섬 지도를 얻어 보물섬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모험극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바다에서 펼쳐지는 모험극이 긴장감을 만들고, 암전 없는 무대 전환과 말하는 앵무새 등 다양한 소품이 볼거리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가사와 멜로디도 더해졌다.

장감을 만들고, 암전 없는 무대 전환과 말하는 앵무새 등 다양한 소품이 볼거리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가사와 멜로디도 더해졌다.

전국연극제에서 여러 차례 희곡상을 수상한 김창일 예술감독과 이영민 프로듀서, 이철승 연출이 함께 제작했다. '치로와 친구들' 키즈카페 상무점, 해맑은 어린이서점 등 협찬처에서 특별이벤트 1+1(티켓구매고객) 초대권을 배부한다. 티켓 가격 3만~1만원.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



삼시세끼 도전하는 꽃할배

광주여협 프로그램 다채

50세이상 식생활교실

손자녀 돌보미 사업

여성리더아카데미 등

지난 29일 광주 생활요리학원에 앞치마를 두른 50~60대 남성들이 등장했다. 광주시여성단체연합회(회장 문진수·이하 광주여협)가 진행하는 '꽃할배 건강한 식생활 교실' 수강생들이다. 개강식을 겸한 이날 강습에서 참가자들은 고등어조림, 멸치 볶음, 취나물 무치기 등을 배웠다.<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여협이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남성들을 위해 기획했다. 영양 관리를 통해 먹거리를 해결하고 기초 음식 만드는 법을 익혀 가족과 스스로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시에 살고 있는 50세 이상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앞으로 14주간(매주 수요일) 교육이 진행된다.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재능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문진수 신임 회장 체제를 맞은 광주여협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손자녀 돌보미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운영중인 광주여협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풍부한 육아 경험을 갖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 등에게 돌보미 전문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올 한해 모두 186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강대 유아교육학과 MOU도 체결,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무엇보다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빛고을 예, 지, 인' 프로그램을 통해 다도 등 인성 교육, 예절 교육을 실시해 문화 시민을 양성하며 홀라춤 강습도 진행한다. 또 환경과 관련한 현장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는 '예코 그린 여성리더아카데미', '남편 가사 육아 참여교실'도 운영한다.

70명 규모로 여협합창단도 구성했다. 바리톤 박병국, 소프라노 김혜미 씨 부부가 강사로 나서 교육을 맡고 있으며 광주여성성대회 등 행사 무대에 설 계획이다.

문진수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광주여협은 올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며 "지역의 큰 행사인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자원봉사 등으로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363-9401.

/김미은기자 mekim@



배우가 읽다 한국 문학 100년을 본다



강부자



송승환



안재욱

'100인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 오디오북 11권 나와

'날개' '배따라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정동환·윤석화·남명렬·박정자씨 등 참여

연말까지 근현대 중·단편 100편 낭독 녹음

병어리 아디다는 물 속에서 최후를 맞는다. 돈 때문에 슬픔을 겪었던 아디다는 돈을 모두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이를 안 남편 수룡은 분노한다. 아디다의 마지막 모습을 들려주는 배우 강부자의 목소리엔 울음이 배어 있다. 그녀는 계몽주의 단편 소설 '백지 아디다'를 70여분 분량으로 녹음했다.

배우 이지혜는 화자(話者)인 여섯살 옥희의 목소리로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읽어준다. 옥희의 내레이션 뿐 아니라 엄마, 손님의 목소리까지 소화해 내 '꼭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하다.

'100인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 첫번째 결과물인 오디오북 11권이 나왔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연극배우 100명이 한국 근현대 중·단편소설 100편을 낭독해 녹음하는 기획이다. 앞으로 매일 10여 편씩 오디오북을 출시해 올해 내 100편을 완간할 계획이다.

'100인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는 근현대 한국문학 100년을 재조명하고 귀로 읽는 새로운 독자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시작했다.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낭독 배우 섭외를 맡고 방송사 EBS 책임 라디오가 낭독 연출과 녹음을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가 작품 선정과 오디오북 유통을 맡았다.

낭독 작품은 한국 근현대문학 중·단편 소설 가운데 문학사적 가치와 작품성, 낭독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배우의 감정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배경음악은 생략했으며 원작의 맛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발표 당시의 표기를 살려 낭독했다. 다채로운 소설은 배우들을 만나면서 훨씬 풍성해졌다. 배우들은 작품 성격에 따라 목소리를 고르고, 대화 부분은 무대에서 연기하듯 낭독했다. 분량은 작품에 따라 35분에서 91분까지 다양하다. 총 100권 가운데 절반에 제작할 작품 50개는 확정돼 이광수의 '무명', 황순원의 '목숨이 마을의 개', 나도향의 '병어리 삼

1차 출시분에는 윤석화의 목소리로 재탄생한 나혜석의 '경의', 송승환이 낭독한 이상의 '날개', 박정자가 읽어주는 김명성의 '나는 사랑한다', 안재욱이 녹음한 '마관', 정동환이 녹음한 김동인의 '배따라기'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최인준의 '암류'(남명렬), 강경혜의 '지하촌'(이지혜), 한철야의 '이녕'(박옥출), 지하현의 '도정'(박희순) 등도 출시됐다.

낭독 작품은 한국 근현대문학 중·단편 소설 가운데 문학사적 가치와 작품성, 낭독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배우의 감정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배경음악은 생략했으며 원작의 맛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발표 당시의 표기를 살려 낭독했다. 다채로운 소설은 배우들을 만나면서 훨씬 풍성해졌다. 배우들은 작품 성격에 따라 목소리를 고르고, 대화 부분은 무대에서 연기하듯 낭독했다. 분량은 작품에 따라 35분에서 91분까지 다양하다.

총 100권 가운데 절반에 제작할 작품 50개는 확정돼 이광수의 '무명', 황순원의 '목숨이 마을의 개', 나도향의 '병어리 삼

룡이' 등을 녹음중이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5공화국때까지 작품을 대상으로 한 후반기 작업 중에서는 김승옥의 '무진기행',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한승원의 '복선', 최인호의 '타인의 방',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 등을 놓고 선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앞으로 송일국, 유준상, 윤주상, 예지원, 이순재, 문성근, 조재현 등 한국의 대표 배우들이 낭독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디오북은 온·오프라인 주요 서점을 통해 CD와 음원 파일로 만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오디오북 전용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CD 가격은 1만9800원, 내려받기 음원 가격은 990원이다. 수익금은 한국연극인복지재단에 기부돼 연극인 복지에 쓰이며, 오디오북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에는 무료 증정한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부자가 읽은 계몽주의 '백지 아디다' 등 1차 출시분을 미리 들어볼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차 타고 독서여행 떠나요

광주시교육청 29일까지 접수

광주시교육청 등이 주최하는 '말하는 독서열차'가 8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2박3일간 파주출판단지에서 열린다. 광주 시내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광주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파주의 출판단지를 직접 방문,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독서토론, 스피치교육 및 특강, 도전 골

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출판사와 인쇄소를 견학,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체험한다.

또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 작가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책임기와 글쓰기의 중요성도 강연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오는 29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360-2623. /박성천기자 skypark@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암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척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품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오피스텔부지적합)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
- 서구 세하동 생산녹지 답 2,400㎡ 매 5.7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 ▶면적: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 ▶매가: 평당 15만원
- ▶지역: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면적: 4100평방미터 (계획권리)
- ▶매가: 1억3천만원
- ▶주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면적: 4509평방미터
- ▶매가: 6억5천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수익형 고층 아파트 특별분양 (한정 세대)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아파트 명가 호반건설)

특별분양가 총 5,350 만원

1. 풀옵션 올리모델링 42㎡, 전용비율 70% 이상
2. 수익율 15~16% (전국 최고 수익율, 관리비 저렴)
3. 나주혁신도시 근거리 위치 / 동시대 정문 앞
4. 미래가치 최고, 신세계 전남, 광주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지 입구
5. 오피스텔의 반값 / 2배의 가치와 만족도
6. 선착순 동호수 지정, 19세대 한정

Tip

- ✓ 전세 3,900만 ~ 4,200만
- ✓ 월세 가능, 486세대(대단지), 주차 완비

스타공인중개사 (대표: 정재호) ☎ 010-3419-9100